우암학원 창학 70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MASERATI
Quattroporte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1197호 1판 (음력 1월 25일) 2020년 2월 18일 화요일

'오월, 부활하다'

5·18 40주년 전국 518명 참여 서울광장서 음악회
말러 교향곡 2번 '부활'…구자범 지휘·김상봉 번역

참가자 3월 9일까지 모집

"나 높이 날아 오르리라, 새날, 새 세상 향해. 사랑 날개로, 참 빛, 눈 부신 그 곳으로. 살기 위해 죽으리라." (말러 교향곡 2번 '부활' 중)

전남도청에서 터져나온 민주화의 함성이 올해는 서울광장에서 울려퍼진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전국에서 모인 518명이 참여하는 '전 국민의 음악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1980년 5월을 기억하고, 그날의 정신을 되새기는 프로젝트다.

서울시와 (재)세종문화회관은 오는 5월 16일 오후 7시 서울광장에서 5·18 40주년 기념음악회 '오월, 부활하다'를 개최한다. 연주곡은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2번 '부활' 전 악장과 민중가요 '그날이 오면'이다.

이번 음악회는 전 국민이 함께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된 5·18 40주년의 의미와 역사를 재조명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민들이 함께 무대를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5·18의 전국화와 세계화에도 의미있는 행보다.

세종문화회관은 이번 연주를 위해 오케스트라단 140여 명, 합창단 370여 명 등 모두 518명을 3월 9일까지 모집한다. 클래식 악기 연주 경험이 있거나 합창단 활동 경험이 있는 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디션은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참가자들은 오는 4~5월 세종문화회관에서 합동 연습을 진행하며 20만원의 출연료를 받는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오월, 부활하다' 홈페이지(http://518.sejongpac.or.kr/#sec01)에 신청서와 지원동기 영상, 오디션 악보 연주 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프로젝트는 지난 2010년 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으로 광주문예회관에서 광주시민합창단과 '부활'을 연주했던 구자범 전 광주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의 제안으로부터 출발했다. 구 지휘자는 서울시측에 40주년 기념행사로 프로 연주단체의 공연 대신 전국에서 모인 일반 시민들이 함께 '오월을 기억하는 공연'을 무대에 올리자고 제안했다.

지휘자 구자범

이번 연주회는 구자범 지휘자가 지휘봉을 잡으며 소프라노 오미선, 메조소프라노 김선정 등이 솔리스트로 참여한다. 또 각 대학의 성악과 교수들도 일반합창단원으로 무대에 서며 '나는 빠리의 택시 운전사'로 유명한 홍세화씨도 합창단원 원서를 접수했다. 세종문화회관은 특히 상징적 의미로 이날 부산시립합창단과 광주시립합창단이 함께 무대에 오르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부활'은 인간의 존재 이유와 죽음에 대한 말러의 깊은 고민이 담겨있는 작품으로 특히 5악장의 합창 부분 가사는 광주의 그날을 연상시켜 인상적이다. 합창단이 부를 한국어 가사는 전남대학교 철학과 김상봉 교수가 번역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광주 5·18 민주화운동 40주기를 맞아 5월 14일부터 20일까지를 '민주인권주간'으로 제정하고 광주시와 함께 '서울의 봄 라이브 콘서트', '민주·인권·평화도시 선언 전국대회' 등 다양한 문화예술 및 학술행사를 공동으로 진행한다. 광주문화예술회관은 광주시립발레단, 광주시립교향악단 등 8개 시립예술단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특별기획공연 '창작국악 교성곡'을 이 기간중인 5월 15일 선보일 예정이다.

세종문화회관 관계자는 "이번 음악회는 광주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특별한 연주회로 518명의 목소리를 통해 80년 5월을 기억하고자 한다"며 "광주시립합창단의 참여를 위해 광주시에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로 광주문화예술회관과 협의를 통해 참여 여부를 이달 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최진석의 '새 말 새 몸짓' ▶9면
굿모닝 예향 - 고흥 ▶18·19면

사랑과 감사의 66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소복소복 쌓인 눈 광주·전남에 첫 눈이 내린 17일, 화순 만연사 앞마당 배롱나무에 걸린 진분홍색 연등에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눈 10㎝ 더 내린다

오후부터 평년기온 회복

17일 8.4㎝가 넘는 지각 폭설이 쏟아진 광주 지역에 18일 오전까지 최대 10㎝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7일 광주와 전남지역(여수·고흥·광양제외)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됐으며, 18일 오전까지도 일부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적설량은 17일 오후 4시 기준 광주 8.4㎝, 담양 9.8㎝, 장성 7.4㎝, 곡성 4.1㎝, 나주 2.6㎝으로 집계됐다.

기상청은 18일 오전 9시까지 광주·전남지역에 5~10㎝의 눈과 5~1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아침까지 북서쪽에서 차가운 찬 공기가 남하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아침 최저기온도 영하 5도~영상 1도(평년 영하 3도~영상 1도)를 밑돌 것으로 보이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19일에는 아침 최저기온 영하 6도~영상 1도, 낮 최고기온 8~12도로 평년 기온을 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노동계·현대차 한 발짝 씩 양보
'광주형 일자리' 성공 모델 만들자

'노동계 보이콧' 사업 난항
코로나19로 시장도 침체

'광주의 미래'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노동계 보이콧'으로 난항을 겪으면서 지역사회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를 벤치마킹한 군산 등 다른 지역은 노사상생형 사업을 추진하는 등 탄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자칫 원조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도 나온다.

사업이 겉도는 사이 국내외 자동차 산업도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글로벌 제조업 위기, 광주형 일자리로 생산 예정인 소형차 시장 침체 등 힘든 상황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지역 내에서 지금이라도 광주시와 노동계, 현대자동차·주주 등 이해 주체들이 지혜를 모아 전국을 대표하는 노사상생형 사업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이유다.

17일 광주시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광주은행 등이 주주로 참여해 설립한 자본금 2300억원의 합작법인 (주)광주글로벌모터스는 지난해 12월 광산구 빛그린국가산단에서 공장 착공식을 갖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돌입했다.

이번 사업은 총 5754억원을 들여 빛그린산단 60만㎡부지 내에 건축면적 8만 5900㎡, 연면적 10만9200㎡ 규모로 완성차 공장을 짓는 것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아 오는 2021년 4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1000cc 미만 SUV를 연간 10만대씩 생산하게 된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2019년 사회조사에서 광주시민 3명 중 1명(31.4%·만 15세 이상 광주시민 9156명 대상)이 광주시의 최우선 추진 사업으로 선택했을 정도로 시민의 관심이 높다.

하지만 노사상생이 핵심인 이 사업은 노동계와 사업주체 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주)광주글로벌모터스측이 최근 이사회를 통해 노동계와의 소통강화를 약속했지만, 노동계는 적정 임금, 적정 노동 시간, 원·하청 체제 개혁, 노사 책임경영 구현 등 4대 의제 이행을 촉구하며 대화의 문을 열지 않고 있다.

광주시의 각종 중재 노력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4대 의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대화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노동이사제 도입, 노동자 임금 2배 내에서 임원진 임금 책정, 현대차 출신 이사 경질 등 구체적 요구안을 내놓고 있다.

노동계에선 오히려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며 노사 상생을 전제로 한 현대차의 대승적 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속이 타 들어가는 건 광주시와 침체한 경기 등으로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만큼이나 어려워진 지역 내 청년 구직자 등 광주시민이다.

시민들은 노동계와 사업주가 서로의 주장만 강조하기 보다는 대화의 문을 상시 열어 놓고, '윈-윈'할 수 있는 협약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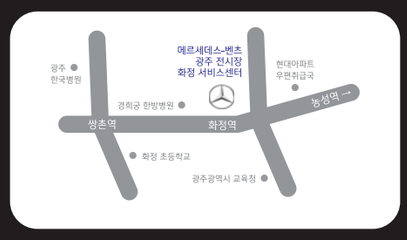
그나마 희망이 보이는 부분은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라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강성노조가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파업 없이 임단협 교섭을 타결한 현대차 노조는 지난 12일 '코로나가 노사 생존 의지를 꺾을 수 없다'란 제목의 소식지를 통해 생존을 위한 노사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노동계와 사업주들이 광주와 대한민국의 발전이란 대승적 차원에서 상생의 문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광주시도 노-사의 중간에서 양측이 대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Never stop improving.
The New C-Class Sedan.

메르세데스-벤츠의 새로운 C-Class.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 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완동)
소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603번길 20(소촌동)
수완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C 220 d (배기량: 1,995cc, 공차 중량: 1,650kg, 자동9단), 복합연비: 14.4km/ℓ(도심연비: 13.2km/ℓ, 고속도로연비: 16.3km/ℓ), 등급: 2등급, 복합CO_2배출량: 131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